무안 '물맞이 치유의 숲' 내일 개장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25ha 부지 국비 포함 80억 원 투입

산림치유센터 · 치유숲길 · 치유정원 등 조성…식목일 행사도

무안군은 오는 17일 오후 2시 무안읍 '물맞이 치유의 숲'에서 개장식과 함께 제78회 식목일 행사가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무안 물맞이 치유의 숲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125ha 부지에 국비를 포함해 80억 원을 투입, 산림치유센터와 다양한 치유숲길, 치유정원 등이 조성됐다.

치유의 숲 내에 건립된 산림치유센터에는 건강 측정실, 심신 이완실, 다목적 치유실 등이 마련돼 탐방객들의 휴식과 건강 회복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 치유의 숲에서는 '숲 in 공감', '숲 in 만남', '숲 in 여유' 등 7종의 나이별 특화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치유 숲길에는 보행 약자들의 산책을 돕는 데크길, 일반 숲길 등 다양한 코스와 함께 명상 쉼터, 전망대 등이 조성돼 방문객들이 숲길을 걸으며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장식과 함께 진행하는 식목일 행사에서는 치유의 숲 주변에 진달래 4320그루를 식재하고, 참여자에게는 비파나무 650그루, 동백나무 300그루 등을 나누어 준다.

군은 올해에는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무장애 나눔길'에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대곡저수지 주변에 산책로 2km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이어 2025년까지 치유의 숲 주변에 숲속 야영장을 추가 조성해 물맞이 골을 다양한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합 휴양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물맞이 치유의 숲이 방문객들에게 지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치유 공간으로서 많은 이용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이기성 기자

"바쁜 영농철, 토요일도 농기계 대여합니다"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소, 3월 18일부터 7월 초까지 특별근무 실시

영암군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토요일 특별근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별근무기간은 이달 18일부터 7월 초까지로, 임대 농기계의 수요에 따라 덕진본점 및 2개의 사업소(삼호읍, 시종면)를 대상으로 전담인력 14명을 3개조로 나눠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현재 35종 748대의 다양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 7,497건, 11,290일의 임대실적을 달성한 바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봄 영농철에는 경운·정지 기종부터 관리기, 파종기, 퇴비살포기 등 다양한 기종의 임대수요 증가에 따른 농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주말 특별근무가 농촌인력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업소는 농기계 사용안전교육 실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현장기술지원 등 다방면에 걸친 농가 지원으로 지역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함평군, 축산업 체계적 육성 위해 '팔 걷어부쳐'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함평군이 지역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축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함평군 주요가축 사육규모는 도내 22개 시·군 중 한우는 5위, 돼지 및 닭은 3위로 축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여기에 주요가축(소, 돼지, 가금) 사육농가의 연평균 소득액은 임금근로자 연평균소득액(4,003만원)의 약 3배인 1억2천만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군은 축산업의 발전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함평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목표를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조례는 축산업의 지원방향 및 범위, 사후관리 등의 기준을 명시하고, 축산농업인 양성에 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환동 축산과장은 "축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649억의 예산을 투입,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축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목포시, 주요 간선도로 아스콘 포장 정비사업 시행

상반기 해안로 등 9개 구간 3월 하순부터 사업추진 6월 중 완료

목포시는 봄맞이 환경정비 및 전국체전을 대비하기 위해 노면상태가 불량한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아스콘 포장 정비사업을 전면 시행한다.

시는 올 한해 17개 노선, 9.1km에 대한 주요 간선도로 포장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총 23억5천만원의 시비를 투입한다.

상반기에는 12억원의 예산으로 시급히 정비가 요구되는 간선도로에 대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추진한다. 해안로 등 9개 구간 2.6km가 해당되며 주로 소성변형, 거북등 균열, 파손 등으로 노면상태가 불량한 곳이 대상이다.

먼저, 해안로(신안비치 호텔 ~ 구. 조선내화 900m)가 3월 하순 공사가 진행된다. 4월에는 영산로 (목포과학대 ~ 교대부속초등학교 500m), 5~6월에는 양을로(동초교사거리 ~ 종원나이스빌) 외 6개 구간 1.2km 등의 공사가 진행된다. 상반기에는 차량 통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완료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도 11억5천만원 투입해 11월까지 목포시 관문인 고하대로(신항교차로~신항삼거리) 등 주요 도로 8개 구간 6.5km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추진한다.

이밖에 시는 이면도로와 보조간선도로에 대해서도 주민참여예산 및 추경예산 확보 등을 통해 상반기 내 3개구간 1.1km 정비할 계획으로 목포 도심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통행이 불편한 노후도로의 기능이 회복돼 시민들에게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주요 간선도로 정비를 통해 시민을 비롯한 관광객과 전국체전 기간동안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신안군, 지도읍 선도1리 마을과 '생명사랑마을' 협약 체결 운영

신안군은 자살로부터 안전한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난 3일 지도읍 선도1리 마을에 이통장과 함께하는 '생명사랑마을'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생명사랑 마을사업'은 지역마을 사정에 밝은 이통장의 생명지킴이 활동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발견 및 연계 의뢰체계를 구축하고 마을방송을 통한 생명사랑 로고송 송출을 통해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자살예방 마을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날 협약식은 생명사랑마을 사업 설명 및 간담회, 생명사랑마을 현판 부착, 생명사랑 캠페인 및 로고송 송출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현재 신안군은 생명사랑마을 4개소(도초 3개소, 지도 1개소)가 선정되어 운영 중으로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 향후 더 많은 마을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생명사랑 마을사업을 통해 생명사랑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자살률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자살예방 환경 조성을 강화하고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덕주 기자